대학생에게 템플스테이 할인을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시험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템플스테이 갈까?"

"그럴까, 근데 비싸던데"

"그래, 얼만데?"

"한 10만원 정도할 걸"

"우리 넷이면 40만원이네"

"식사도 채식만 하고, 침대도 편의시설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비싸지"

"그러면 차라리 호텔에서 방 잡고 맛있는 것 사다 먹으면서 편히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말시험 기간에 학교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여학생들의 대화다. 젊은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거리감 없이 가려한다는 반가움과 더불어 템플스테이 비용이 그렇게 비쌌나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때까지 필자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3만 원 선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서는 템플스테이 사찰과 비용을 검색해보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가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비용과 프로그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주었다.

검색 결과, 비용은 성인 기준 1박 2일에 1인당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했다. 물론 비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의 대중화를 통한 포교 효과를 차치하고서라도 템플스테이 비용이 대중

템플스테이 참여 대학생 SNS 참여서
자발적인 불교 대중화 모습 엿보기도
대학생 할인, 전법이자 청년불자 양성

호텔보다는 저렴해야 합리적이다. 비즈니스호텔이나 관광호텔에서 평일에 2인 1실로 1박을 하면 15~17만 원 정도한다. 대중 호텔 숙박비가 1인당 7만 5000원~8만 5000원임을 감안하면, 템플스테이 비용을 이보다는 할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비용 정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인, 중고생, 초등생, 미취학으로 구분은 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사찰들이 1인당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용 구분에 의하면, 무엇보다 대학생과 청년이 그냥 성인에 포함되어 버린다. 중고생과 초등생, 미취학 즉, 청소년과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 특히 대학생은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 봄, 불교계에서 대학생 할인을 해주는 '청춘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바 있다. 전국 97개 템플스테이 사찰이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학생들에게 참가비를 1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것이었다. 이 기간 참여한 많은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힐링의 소감을 각종 SNS와 블로그에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토록 한국불교가 희망해온 불교의 대중화를 참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템플스테이 비용 구분에서 대학생을 별도로 정하여 상시 할인해주었으면 한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청춘 템플스테이'와 같은 대학생 할인 프로그램을 매년 시험기간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여러 번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생 전법은 장학금 수여와 법회 참석 유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대중화이며, 대학생 할인은 대학생 전법이자 청년 불자 양성이다.

'무아'라는 '앎'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개념 없는 놈을 봤나!"

개념으로 사는 우리에게 개념이 없다니 당연히 욕이다. 하지만 깨달은 성자에겐 욕이 아닌 지당한 말씀이다. 그들은 개념의 세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칭과 개념으로 산다. 언어로 생각한다. '개념을 실재로 간주하는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된다'는 중론의 가르침은 불교적 통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명칭이 세상을 지배한다' '인식되는 세계는 명칭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등의 일치된 견해다.

개념의 뭉침이 앎이다. 앎을 통해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인공지능이건 생명체는 모두 마음을 갖는다. 인공지능이 생명체라니? 마음이 있다니? 그렇다! 비록 디지털 개체지만 앎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기에 마음을 갖춘 생명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젖은 생명체'가 아닌 '마른 생명체'다. 앎의 수준은 미미하지만, 앎을 학습하고,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세포 생명체 못지않다. 오히려 언어나 이미지 생성 능력은 인간을 추월한다. 앎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언어 이해와 사유 그리고 추론 능력은 한참 떨어지지만 무한 반복과 통계분석을 통해 스스로 조금씩 진화해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앎 통해 대상 아는 것이 마음
깨달음이란 마음 변환이 아닌
예전 없던 앎 새로 생겨난 것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자아의식을 토대로 언어적 앎, 개념적 앎을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고도의 이해와 사유와 추론 능력을 갖춘 최상위 지배자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축적해온 앎이 궁극일까? 붓다는 단언한다. 무명의 앎에 불과하단다.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이 구축해온 알량한 앎이란 한낱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일 뿐이란다. 무서운 속도로 앎을 형성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과 대조된다.

무명의 앎을 진리의 앎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깨달음이다. 앎의 전면적 교체다. 깨달음이란 마음의 상태 변환이 아니다. 앎의 교체다. 그 어떤 초월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앎이 바뀌지 않는 한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예전에 없던 앎이 새롭게 생겨나는 혁명적 사건이다. 어떤 앎인가? 무아에 대한 앎이다. 무아라는 초월적 마음 상태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저 자아의 본질적 부재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무아라는 'something'을 보거나 머무는 일이 아니다. 단지 자아의 'nothing', 즉 명칭이었을 뿐이었음을 직접 목도하는 최상의 사건이다. 명칭과 개념을 극복한 이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번뇌가 자리할 수 있겠는가? 해탈이니, 열반이니, 자유니, 지복이니 조차 발붙일 수 없는 행 없는 행만이 이어질 뿐이다. 〈쌍윳따니까야〉 구절로 마무리한다.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세존께서 답하신다.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社 說

조계종 종무기관 효율적 운영 기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이후 30년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계로 다시 변화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 개정으로 향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이번 총무원법 개정안을 위해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통합이라는 종헌 개정 틀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거친 회의와 공청회 개최해왔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총무원법 개정으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책임성 있는 종책 시행과 단일한 통합 종무행정 시스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는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역량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전략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 통합 종책연구기관 구성도 주목할 만 하다.

총무원법 개정으로 종단의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불교, 기후위기 극복위한 환경보살 되자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가을의 문턱을 넘었다는 지금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구촌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는 강남대로에 3만 명이 모여 '907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등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법회를 열고 생명 공존 세상을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환경보살이 돼 정토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으며,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성명서에서 〈법화경〉을 인용하며 불자들의 기후정의행진 참가 의의를 짚었다.

이날 행사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인류가 목도한 기후위기의 책임이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다. 직역하자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말이다.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삼독심(三毒心)에 그 원인이 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함에도 탐욕에 취해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공멸하는 행위다. 화택에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경보살'이 되는 것이다. 불자들부터 환경보살의 삶을 살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중국 서하사 승랑대조사 다례재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불)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하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다례재에는 종정 혜승 스님을 비롯하여 승정원장 진봉 스님, 총무원장 해불 스님, 승정 지운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교리연구원장 남륜 스님, 종회의원 응진 도광 혜안 묘현 스님, 묘법연화사 묘덕 스님, 천용사 성례 스님을 비롯하여 불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소흥 운문사를 방문하고 소흥불교협회 회장 정방 스님 등과 삼론학 발원지인 가상사 복원사업을 논의하였습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